

## 은행

## 산업이슈

2020. 08. 26

## 대부업 통한 대출규제 우회 규제 영향 코멘트

## News

**대부업 통한 대출규제 우회 금지:** 정부는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①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와 ②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경찰청)을 발표했는데, ③ 금감원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우회 사례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대부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인데, 6월말 기준 대출잔액 10,30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향후 DSR 산출 시 신용대출 반영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의 주택구입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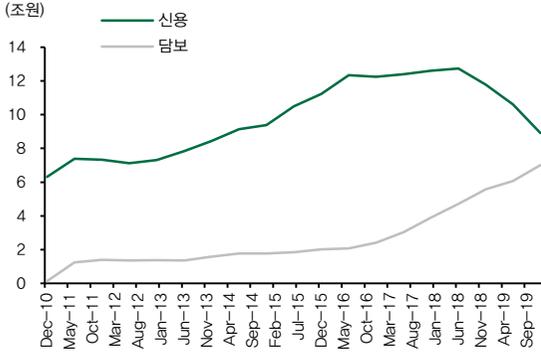
**대부업대출 잔액 계속 감소할 가능성 높아:** 지난 6월 금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등록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9조원이며 이중 담보대출은 7조원 수준이다.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신용대출은 2019년 6월말 10.6조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간 1.7조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담보대출은 9천3백억원 가량 증가했었다. 금번에 질권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전체적으로 대부업 담보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최고금리, 소폭 인하 가능성 있음:** 주요 지자체장 등이 10%로의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8/25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24% 최고금리에서 값을 능력이 있냐를 생각하면 의문이 있고,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4%p 내외의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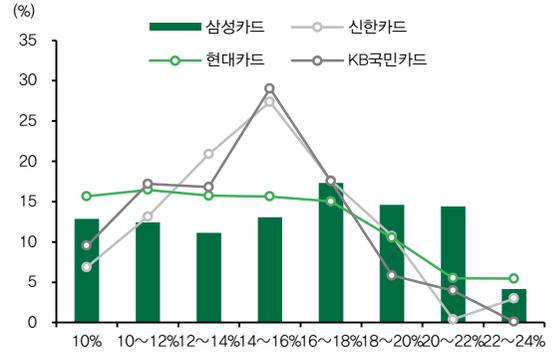
**신용카드사와 대부업 손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등록대부업 대출잔액은 계속 감소해왔다.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출모집광고 제한과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판관비 및 조달비용 하락의 수해도 거의 누리지 못했으므로, 금번 담보대출 제한조치에 이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급격한 시장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의 경우 20% 이상 금리대 비중이 회사별로 3~20%에 달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이행실태 점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지만, 신용카드 및 대부업체의 경우 손익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표 1. 등록 대부업체 대출잔액 추이



자료: 금감원, DB금융투자

도표 2. 주요 신용카드사 카드론 금리대별 분포 (6월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DB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거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익 비율 (2020-06-30 기준) - 매수(84.5%) 중립(15.5%) 매도(0.0%)

기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